

#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절감시현

**“쌀**

생산비 절감기술 특히 어린묘를 수년간 재배하여 생산비 절감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 덕분에 이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생산비 절감 기술 발굴과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쌀농사에 큰 공을 세운 우수 시·도와 시·군 및 농가에 대한 시상식에서 쌀생산비 절감 우수농가(다수확)로 선정돼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姜元求씨(40, 전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부신)의 당당한 수상소감이다.

평범한 농촌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농촌일을 거들며 자란 姜씨는 농촌의 대를 이어 농사를 경영코자 김제농고에 진학하여 내일의 농촌후계자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꿈을 키워왔다.

## ‘실력은 성공의 어머니’ 교훈 절감

1981년 백산면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돼 1,200평의 논을 구입, 기존의 농지 8,400평을 합하여 9,600평을 경작하기 시작한 姜씨

는 농업에 뜻을 둔 후계자와 결합하여 기계화협업농을 조직,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나 불과 1년만에 뜻을 펴보지도 못한채 2천만원의 빚을 안고 중도포기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금년 2월부터 姜씨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김제 백산농협.

결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산 경험이었다고 말하는姜씨는 92년 농업진흥공사에 농지 확대차원에서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국가에서 사주고 나중에 갚아 나간다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왕 농사에 승부를 걸었다고 생각한姜씨의 진면목은

건조기 4대를 설치, 수확과 동시에 벼를 건조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고 콤바인 3대, 트랙터 2대, 운반트럭 1대를 보유하여 인근 농사도 함께 경작하면서 연간 200필지 농사를 거뜬히 소화해 내는 위탁영농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당당해 보였다.혈기왕성함 속에 주관이 강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공직자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검은피부에 곱지않은 손결속에서 분명 그가 아내와 함께 해온 기나긴 농부의 길을 걸어왔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을 수도작에 관한한 '學位받지 않은 博士'로 자칭할 정도로 수도재배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는姜씨에게서 작지만 큰 힘을 지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 마음 편하다는姜씨는 품질에 관계없이 일괄 수매하는 현행 수매제도는 품질로 경쟁해야 하는 WTO체제하에서의 쌀 경쟁력 확보에 미흡하다며 품질별로 가격을 차등지급함으로써 미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일성이다.

특별한 영농기법을 소개해 달라는 취재팀의 주문에 대하여는 토양개량이 다수확 및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규산질을 2년마다 시용하고 벼짚을 수확과 동시에 절단, 가을갈이를 하며 부족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어린묘를 집에서 육묘, 평당 85주를 이양해 왔다고 말했다.

또 지도기관의 예찰정보를 참고, 적기에 예방 위주로 년 3회 정도 병해충 방제를 한다는姜씨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병해



수도재배법 및 현형과 조합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97증산왕 姜元조조합장.

이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매년 다량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노동력이라야 아내와 함께 둘뿐이었다는姜씨는 현재 60,000평(자가 36,000, 임대 24,000)에 연간 조수익이 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쌀전업농으로 거듭났다.

현재姜씨의 뒷집 공터에는 건조작업이 가능한 창고 150평에

한편 취재팀은姜씨를 만난 이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히 벼 전업농으로만 이해했던姜씨는 금년 1월 당당히 김제시 백산농업협동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2월에 취임한 이후 지금은 농촌에 가까운 진정한 농민의 농협으로 환골탈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코 크지 않은 체구에 매사에

충 방제를 하지 않고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며 유기농법, 무농약 농법에 대한 일침을 가한 후 노력절감 및 다수확을 위해 농약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발생시기에 맞게 방제체

계를 세워 안전수칙을 지켜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姜씨는 논정지작업과 묘판운반, 이앙 등 노동력의 50%가 5월 중하순에 집중되어 있어 힘들다며 노력분산을 위해 특별

한 영농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뒤 기술확립을 전제로 '건답직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쌀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약정보**

**중산왕 인터뷰**

**농약사용은 두개 얻기위해 투자한 하나 의 수단**



**쌀산업 종합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5년간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농기계 반값공급, 쌀전업농 육성 등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주어 열심히 농업에 종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정부비축물량 확대로 수매량도 늘리고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만 우리의 식량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온 국민이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국내 쌀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규모화로 농가당 10ha 정도를 경작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을 실천하며 품질고급화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품종을 재배한다면 경쟁력이 배가되어 쌀농업 발전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잔류예방을 위한 안전사용에 대한 견해는?**

지금도 농약살포시 사용적기 및 횃수를 잘 지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독성이 낮아 인체에 무해하며 사용이 간편한 농약을 개발, 보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